

동해안 산불관련 언론 스크랩(2-1)

[동해안산불] 산불대응활동

news 1 뉴스
KOREA

2022년 03월 05일(화) 01시
사 회

삼척으로 넘어온 '울진 화마'...강원소방 "민가 방어에는 성공"

인접지역 삼척 고포마을 40여채 민가 중 4채 피해...방어선 구축, 확산저지 단계



강원 삼척 원덕읍 화재 방어선 구축(강원도소방본부 제공)2022.03.05뉴스1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북쪽인 강원 삼척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인접 지역인 삼척 원덕읍 고포마을 주택 방어에는 성공했다고 밝혔다.

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4일 오전 11시17분쯤 경북 울진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같은날 오후 5시쯤 도 경계를 넘어 삼척으로 강풍을 타고 번졌다.

불은 인접 지역인 삼척 원덕읍 고포마을을 위협했고, 호산리의 LNG 저장소 2km 인근까지 접근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원소방은 장비 85대와 인원 225명을 현장에 투입해 삼척 LNG기지 방어선 구축 및 민가보호 진압작전에 나섰다.

울진에 배치할 예정이었던 중앙119구조본부 대용량 방사포도 LNG 기지에 배치됐다.

이 불로 40여채 민가 중 주택 2채가 전소되고 주택 2채가 일부 소실됐으나 소방당국의 진압작전으로 나머지 주택 방어에는 성공했다.

소방당국은 밤사이 불길이 민가로 번지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하는 한편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력하고 있다.

한편 산림·소방당국은 5일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를 총동원해 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원 삼척 원덕읍 화재 방어선 구축

선거 있는 짝수 해..또 초대형 산불



[앵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거가 있는 짝수 해에 도내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다는 징크스, 이번에도 깨지 못했습니다.

이틀 새 삼척과 강릉, 동해, 영월에서 잇따라 5건의 초대형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1,400개 면적, 산림 1000ha가 넘게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아직 큰 불을 잡지 못한 가운데, 정부는 강원도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먼저, 도내 산불 상황을 조기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터]
말 그대로 불지옥이었습니다.

불은 강풍을 타고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날았고, 능선에는 긴 불띠가 이어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매캐한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지금 울진에서 삼척으로 이어지는 한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도로 양 옆 산을 모두 태우고 있습니다."

화마는 소중한 보금자리도 앗아갔습니다.

불에 탄 집을 보는 주민 속도 타들어 갑니다.

[인터뷰]
"산불이 예견됐는데 실화인지 모르겠지만 뭐 집이 당장 탔으니까 일단 뭐 기거할 거처나 이런걸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죠 뭐."

어제 오전 11시 17분쯤 경북 울진군 북면의 한 야산에서 시작한 불은 강풍을 타고 6시간 여 만에 삼척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원덕읍 6개 마을 주민 230명이 대피했고, 건물 3채와 산림 360ha를 화마가 집어 삼켰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강릉에서도 불길 이 일었습니다.

방화범이 화김에 낸 불은 동해 남부까지 번져 1명이 숨지고, 산림 560ha가 소실됐습니다.

주택 화재 피해도 속출하는 가운데, 동해고속도로 옥계IC에서 동해IC구간이 통제됐습니다.

KTX와 무궁화호 등 열차 운행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이틀 간 인력 5,000여 명과 장비 330대가 동원돼 총력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강릉과 영월 등 어느 한 곳도 불길을 완전히 잡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우리 정부 내부에 총리님이나 장관님이나 대통령께서 직접 사수해라.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서 소방청장이 현장 지휘를 통해서 방어를 해라."

정부는 어제 오후 10시를 기해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과 경북에 재난사태를 선포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산불 피해지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강원소방, 입원 환자.고립 주민 수백명 구조... 탄약고도 지켜내



화마와 싸우는 소방대원들

(서울=연합뉴스) 5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강원도 삼척시 원덕면 노경리에서 소방대원들이 소방차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2022.3.5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uperdoo82@yna.co.kr

(동해=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강릉 옥계에서 난 불이 동해로 크게 번지면서 소방당국이 환자와 고립된 주민 수백 명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강원도긴급구조통제단은 5일 오후 4시께 동해노인요양원 입원환자 77명을 소방버스와 동해시청 버스를 이용해 북평여고로 대피시켰다.

1시간 전에는 동해병원에 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152명을 동해시에서 제공하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고, 중환자 8명은 구급차에 태워 태백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날 낮 12시 11분께 승지로에서 주민 30여 명이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해 약 1시간 만에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재난 상황에 접어들어 따라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제로 전환, 인명구조와 대피를 최우선으로 대응 진술을 펼치고 있다.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불이 해군 1함대 사령부 방면으로 확산했으나 1함대와 함께 효율적인 방어로 탄약고 등을 지켜내기도 했다.

강원소방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혼연일체가 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산불로부터 지켜낸 해군 1함대 탄약고

(동해=연합뉴스) 5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릉을 타고 인근 동해시 해군 1함대 사령부 방면으로 확산했으나 소방력과 1함대가 효율적인 방어로 탄약고 등을 지켜냈다. 사진은 이날 산불이 확산한 1함대 주변에 배치된 소방차 모습. 2022.3.5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mz@yna.co.kr

conanys@yna.co.kr

박영서(conanys@yna.co.kr)

강원소방본부, 해군 1함대 탄약고 지켜내... 고립 주민 수백명 구조



5일 강원도소방본부 소속 소방차가 동해시 해군 1함대 탄약고에 배치돼있다. 사진 제공=강원도소방본부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동해시로 번지면서 해군 1함대 사령부 탄약고로 향했지만 가운데 소방당국이 조기에 화로를 막아 산불 확산을 저지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5일 오후 산불이 동해시 해군 1함대 사령부 방면으로 확산했으나 해군 1함대 소속 장병과 함께 효율적인 방어로 탄약고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또 오후 4시에는 동해노인요양원 입원환자 77명을 소방버스와 동해시청 버스를 이용해 북평여고로 대피시켰다.

이보다 앞서 1시간 전에는 동해병원에 있던 코로나19 환자 152명을 안전장소로 이동시켰고 중환자 8명은 구급차에 태워 태백병원으로 이송했다. 동해시 승지로에서도 주민 30여명이 고립되자 강원소방 인력이 즉각 출동해 약 1시간 만에 안전지대로 이동시켰다.

강원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 혼연일체가 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탄약고를 지켜라

2022/03/05 17:31 송고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5일 새벽 강원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인접한 동해시 평릉동 해군 1함대 사령부 방면으로 확산됐으나 선배치된 소방력과 1함대가 효율적인 화재 대비작전을 펼쳐 사령부 내 탄약고 등을 방어했다.(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022.3.5/뉴스1 leejj@news1.kr

주민 수백명 구조하고 탄약고도 지켜낸 강원소방

산불 발생후 '긴급구조통제단' 전환 인명피해 예방 최선

지난 4일부터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산불 현장에서 강원소방의 맹활약이 빛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재난 상황에 접어들면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제로 전환, 인명구조와 대피를 최우선으로 대응 전술을 펼치고 있다. 산불 발생 사흘째인 6일 산불로 인해 삼척시 원덕읍행정복지센터로 대피한 102세 할머니가 있다는 소식에 구급대원 3명을 원덕읍으로 보냈다. 구급대원들은 할머니의 혈압, 혈당 등을 체크하며 기초건강상태를 점검했다.

이날 강릉 남양리 마을회관에서도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했으며 노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정기적으로 이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민을 대피시키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긴급구조통제단은 5일 오후 4시께 동해 노인요양원 입원환자 77명을 소방버스와 동해시청 버스를 이용해 북평여고로 대피시켰다.

앞서 이날 오후 3시께에는 동해병원에 있던 코로나19 환자 152명을 동해시에서 제공되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



◇6일 강릉 옥계면에서 이흥교 소방청장(오른쪽 두 번째)과 윤상기도소방본부장(오른쪽 첫 번째) 등 소방 관계자들이 산불 현장을 살피고 있다.

시켰고, 중환자 8명은 구급차에 태워 태백병원으로 이송했다. 낮 12시11분께 동해시 승지로 일대 주민 30여명이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1시간여 만에 주민 모두를 안전지대로 옮기기도 했다.

탄약고를 안전하게 방어하며 추가 피해도 막아냈다.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 동해시 평릉동 해군 1함대 사령부 방향으로 확산되자 사전에 배치된 소방대원들이 해군 1함대 자체소방대와 함께 효율

적인 방어로 사령부내 탄약고 등을 지켜냈다. 강릉, 동해, 삼척의 의용소방대 49개대 1,415명도 자체운용 중인 진화장비로 산불 진압 활동에 총력을 다하는 등 산불 현장 곳곳에서 강원소방이 활약 중인 상황이다.

6일 오후 현재까지 산불이 진화되지 않으면서 재산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용석진 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관계기관과 혼연일체가 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

화마와의 밤샘 사투... 삼척 LNG기지 지켜냈다



경북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강원 삼척시로 번지며 국내 최대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를 위협했으나, 소방과 군 당국이 힘을 합쳐 방어에 성공했다.

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울진에서 도 경계를 넘어 강원까지 확산된 산불은 전날 오후 5시 30분쯤 삼척시 원덕읍 소재 LNG 생산기지 2km 전방 앞산까지 접근했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소방대원과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은 해군 함대와 공군에 지원까지 요청한 상태에서 화마와 밤새 사투를 벌였다. 강풍을 타고 금세 집어삼킬 듯한 기세였다는 소방 관계자의 얘기다.

불이 삼척으로 번지자 소방당국은 울진에 투입됐던 진화대원과 장비를 삼척 LNG 기지로 되돌려 이동시켰다. 소방당국은 월천저수지를 진화 자원 집결지로 정하고 민가보호를 위한 1차 방어선을 구축한 뒤, 호산삼거리 주유소에 119현장 지휘소를 설치했다.

이후 소방대원 225명과 장비 90여 대를 투입, LNG 기지를 포위하듯 둘러싼 상태에서 사전에 물을 뿌리는 예비 살수 작전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울진 산불에서 원자력발전소 보호에 활용한 35만 리터급 대용량포방사시스템 2대를 LNG기지 주변에 전진 배치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긴장감이 흘렀다.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강릉 공군기지와 동해 1함대에도 장비와 인원 지원을 요청해 둔 상태였다. 중앙119구조본부는 고성능 펌프차 등 장비 16대를 LNG 생산기지 인근의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주변에 배치해 밤새 예비 살수 등 방어 작업을 펼쳤다.

다행히 밤사이 강풍이 잦아들고 소강 국면을 보이면서 LNG 생산기지를 위협했던 화마는 최종 방어선인 원덕읍 가곡천을 넘지는 못했다. 날이 밝자 산림 당국은 울진·삼척 일대에 진화 헬기 58대를 투입, 오전 중 주불 진화를 위해 총력전을 시작했다. 강원소방본부 관계자는 "화마로부터 LNG 생산기지를 막아내지 못하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방어작전을 펼쳤다"고 밤새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강원 산불 진화 한마음으로... 전국 소방관 전천후 활약

소방인원 6000여명 현장 투입
공중 헬기·지상 민관군 분산
“도 소방대원과 활동하며 배워”

강원도를 집어삼킨 역대급 산불을 진화하는 데에는 전국에서 한마음으로 모인 소방관들의 활약이 컸다. 경북 울진에서 시작돼 삼척으로 이어진 이번 화재에 투입된 소방인원만 6000여명이다.

이번 동해안 산불과 같은 대형산불은 헬기가 투입되지 않으면 진화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다. 따라서 강원지역 산불 현장에서는 공중에



전국소방동원령에 따라 강원도 동해안 산불현장에 투입된 경기 부천지역의 소방관들. 산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강원도소방본부

서는 헬기가, 지상에서는 민·관·군이 합동으로 광범위한 지역으로 분산해야 했다. 소방대원들은 펌프차, 산불전문

진화차로 사용해 화재를 진압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은 구석구석 남은 잔불 제거에 집중했다.

무엇보다 전국에서 동원된 소방인력이 전천후 활동을 펼쳤다. 동해 시내권으로 산불이 확산돼 해군 1함대사령부 주변의 방어선을 구축한 울산 북부소방서는 소방차량 3대에 8명의 인력으로 전진배치돼 수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화재확산을 저지하는데 성공, 국가주요시설 방어를 기여했다.

대형산불을 처음 경험한 경기 부천소방서의 소방사이경태 대원은 “동해 발한동 일대가 화세가 커져 흑시나 나도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염려도 있었지만 노하우가 축적된 강원도 소방대원들과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걸 배웠다”는 소감을 강원소방에 전하기도 했다. 신재훈

만사 제쳐놓고 달려온 전국 소방관들 '숨은 주역'

새내기부터 베테랑까지 '만점 활약'...인명피해 '제로'

"지치지 마세요" "마지막 영웅" 응원·격려품 쇄도



짧은 휴식...울진삼척산불 닻새끼

(울진=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울진삼척산불 발생 닻새끼인 8일 오후 6시경 경북 울진군 북면 한울에너지점 앞마당에서 진화에 나선 한 소방대원이 컵라면을 들고 자신의 소방차로 걸어가고 있다. 2022.3.8 mikit@yna.co.kr

(강릉·동해=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대형산불이 강원 동해안을 휩쓸었음에도 단 한 건의 인명사고와 주요 기간시설이 피해를 보지 않은 데에는 소방대원들의 활약이 컸다.

'산불 진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산림청 소속 진화대원들과 달리 '주택·시설과 인명 보호'가 최우선인 소방대원들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을과 도심을 사수했다.

9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닻새 동안 동해안에는 전국에서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5천여 명과 소방차와 소방헬기 등 370여 대가 투입돼 화마(火魔)와 사투를 벌였다.

공중에서는 헬기가, 지상에서는 민·관·군이 합동으로 광범위하게 흩어져 화재를 진압했다.

민가를 덮치려 할 때면 소방대원들이 펌프차와 전문진화차로 불을 끄고, 의용소방대원들은 구석구석 남은 불씨를 제거했다.

지난 4일 울진에서 삼척까지 불이 급속도로 번지며 LNG 생산기지까지 위협했을 때는 35만L(리터)급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2대를 삼척 LNG기지 주변에 전진 배치해 확산 위험을 차단했다.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은 1분에 7만5천L의 소방용수를 130m까지 방수하는 능력을 갖춘 '울트라급' 소방차다.

만사 제쳐놓고 달려온 전국 소방관들 '숨은 주역'

새내기부터 베테랑까지 '만점 활약'...인명피해 '제로'

"지치지 마세요" "마지막 영웅" 응원·격려품 쇄도



짧은 휴식...울진삼척산불 닻새째

(울진=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울진삼척산불 발생 닻새째인 8일 오후 6시경 경북 울진군 북면 한울에너지림 앞마당에서 진화에 나선 한 소방대원이 커피만을 들고 자신의 소방차로 걸어가고 있다. 2022.3.8 mlkht@yna.co.kr



산불진화대원이 짊어진 무게

(삼척=연합뉴스) 7일 오후 강원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에서 강원도소방본부 화동해특수재난대응단 소속 대원이 산불 진화를 위해 호스릴 장비를 끌고 있다. 2022.3.7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대 및 DB 금지) conans@yna.co.kr

(강릉·동해=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대형산불이 강원 동해안을 휩쓸었음에도 단 한 건의 인명사고와 주요 기간시설이 피해를 보지 않은 데에는 소방대원들의 활약이 컸다.

'산불 진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산림청 소속 진화대원들과 달리 '주택·시설과 인명 보호'가 최우선인 소방대원들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을과 도심을 사수했다.

9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닻새 동안 동해안에는 전국에서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5천여 명과 소방차와 소방헬기 등 370여 대가 투입돼 화마(火魔)와 사투를 벌였다.

공중에서는 헬기가, 지상에서는 민·관·군이 합동으로 광범위하게 흩어져 화재를 진압했다.

민가를 덮치려 할 때면 소방대원들이 펌프차와 전문진화차로 불을 끄고, 의용소방대원들은 구석구석 남은 불씨를 제거했다.

지난 4일 울진에서 삼척까지 불이 급속도로 번지며 LNG 생산기지까지 위협했을 때는 35만L(리터)급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2대를 삼척 LNG기지 주변에 전진 배치해 확산 위험을 차단했다.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은 1분에 7만5천L의 소방용수를 130m까지 방수하는 능력을 갖춘 '울트라급' 소방차다.

이튿날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해까지 확산했을 때는 울산 북부소방서 대원 8명이 해군1함대사령부 탄약고를 지켜냈다.

소방대원들은 또 요양원과 병원에 있던 환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소방버스를 활용해 대피시키고, 중환자들은 구급차에 태워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곳곳에서 활약했다.

새내기 소방관인 경기 부천소방서 소속 이경태 소방사는 "동해 일대에 화세가 커져 '나도 위험할 수 있겠다'고 염려했지만, 기우에 불과했다"며 "베테랑 대원들과 함께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휴일까지 반납하고 진화 기간 내내 등짐 펌프를 둘러매고, 불 갈퀴를 손에 든 채 묵묵히 화마에 맞선 의용소방대원들 역시 '숨은 일등공신'이었다.

한 의용소방대원은 "추운 날씨에 몸이 젖으면 더 힘들지만, 한시라도 빨리 불을 끄지 않으면 확산을 견줄 수 없어 어떤 환경이라도 감수해야 한다"며 소임을 다했다.



상동 북계 산물 밤샘 진화

(강릉=연합뉴스) 강원 곳곳에서 사흘째 산불이 이어지는 6일 새벽 강릉시 옥계면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22.3.6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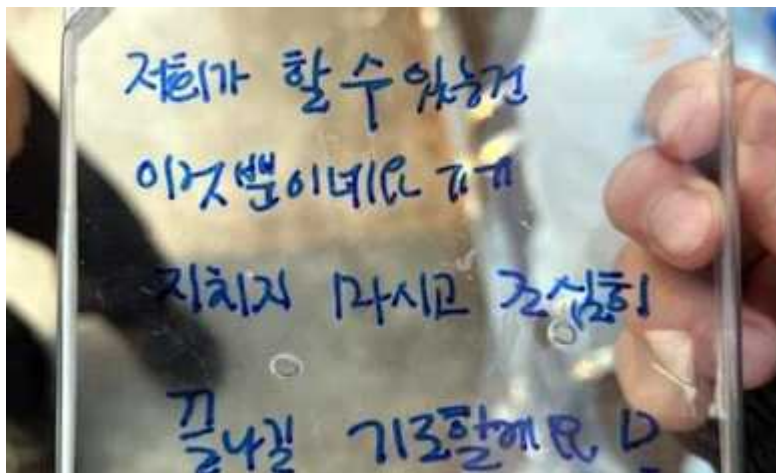
이들을 향한 응원 메시지와 기부 물품도 쏟아졌다.

산불 현장 인근 햄버거집 주인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네요. 지치지 마시고 조심히 끝내길 기도 할게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햄버거를 건넸다.

강릉소방서에는 누군가 "뜨거운 열기와 독한 연기로 연일 고생하고 계신 소방관님들에게 감사와 안쓰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마지막 영웅입니다"라며 화장품을 놓고 갔다.

산림 80ha가 소실된 영월에도 신원을 밝히지 않은 3명의 익명 기부자가 지난 7~8일 소방서를 찾아 기부 물품을 주고 가는 따뜻한 손길이 잇따랐다.

윤상기 소방본부장은 "따뜻한 응원과 격려 덕에 오랜 시간 진화작업에 지쳐있는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산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진화와 인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햄버거 포장지에 적힌 손글씨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상범 국힘 강원도당 위원장, 산불현장 소방공무원 격려



[동해=뉴스시스] 김경목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강원도당 위원장이 6일 오후 강원 삼척시 원덕읍 강원도소방본부 현장지휘본부를 방문해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강원도당 제공) 2022.03.07. photo@newsis.com

강원 강릉 옥계 산불현장 현지 확인나선 소방청장.강원소방본부장

2022/03/06 13:51 송고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이홍교 소방청장과 윤상기 강원소방본부장이 6일 강원 강릉 옥계 산불 현장을 찾아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022.3.6/뉴스1 leejj@news1.kr

최문순 강원도지사, 강릉시 옥계면 산불 현장 지휘본부 격려 방문

박지은



▲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도 산불이 발생, 옥계면사무소에 현장지휘본부가 설치된 가운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5일 본부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 제공=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진화 중인 가운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5일 현장지휘본부가 설치된 옥계면사무소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옥계면사무소에는 시공무원과 산불진화대, 소방대원 등 600여 명의 인력이 배치, 산불현장 지휘가 이뤄지고 있다.

김명중 강원도경제부지사도 현장지휘를 통해 산불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도 산불이 발생, 옥계면사무소에 현장지휘본부가 설치된 가운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5일 본부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 제공=강원도)



▲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도 산불이 발생, 옥계면사무소에 현장지휘본부가 설치된 가운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5일 본부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 제공=강원도)

한편 산림당국에 따르면 5일 오전 1시 20분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주택에서 난 불이 인근 산으로 옮겨붙었다.

당국은 진화인력 50명과 소방차 19대를 투입해 초기 진화에 나섰으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산불은 주변으로 빠르게 번졌고, 오전 5시 30분쯤 동해 망상으로까지 확산했다. 이 지역에는 현재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며, 습도가 36%로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초속 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고 있다. 순간최대풍속은 초속 19m에 달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축구장 면적 84배에 달하는 산림 60ha(헥타르·1ha는 1만m²)가 불에 탔고, 주택 4채가 전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 15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70대 여성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동해 망상과 인접한 곳에 있는 요양원 입소자와 직원 100명도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



소방청장·도소방본부장 강릉 옥계면 방문 이흥교(사진 오른쪽 두번째) 소방청장과 윤상기(맨 오른쪽) 강원도소방본부장이 6일 산불이 발생한 강릉시 옥계면에 방문해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강원도소방본부



도소방본부 동해안 산불 대응 설명회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6일 동해 부곡동행정복지센터에서 동해안 산불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동해 산불 현황 점검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6일 동해시 북평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에 발생한 산불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최문순 도지사 동해산불 진행 상황 청취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6일 오전 동해시 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동해산불대책본부를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산불 진행 상황을 청취했다.

江原日報

2022년 03월 06일
(종합)

[포토뉴스]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 상황판단회의 주재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사진 가운데)은 6일 오후 5시30분께 긴급구조통제단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해 야간산불대응대책 등을 논의했다.

권순찬(sckwon@kwnews.co.kr)



최문순 강원도지사 동해소방서 방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7일 동해소방서를 방문해 산불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산불진화 작업을 진행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전국의용소방대연합 강원소방에 감사인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는 7일 강릉산불대응통제단을 방문, 강원도소방본부장과 도의용소방대연합회에 격려금을 전달하고 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의소대연합회 산불피해 격려금 전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김미경)는 7일 강릉산불대응통제단이 있는 옥계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윤상기 도소방본부장과 이순석 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산불 진화에 고군분투 중인 소방대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마을 지켜낸 산불전문 진화차...동해안 산불서 '활약'

산불전문진화차 활약에 산불 덮친 마을 주택 일부만 피해

울트라급 '대용량포 방사시스템'도 원전·LNG기지 배치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피해 면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동해안 산불에서 산불전문 진화차와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등 첨단 소방 시설이 활약을 펼쳤다.

13일 소방청에 따르면 작년 10대가 처음 도입된 산불전문 진화차는 이번 강원도 산불 현장에 배치됐다.

산불이 발생한 첫날인 지난 4일 오후 6시께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의 고포마을은 산불이 마을 전체를 덮칠 위기에 처했다. 산불이 울진에서 넘어오는 강한 바람을 타고 이 마을을 향해 돌진했다.

소방청은 대규모 인력, 소방차와 함께 산불전문 진화차 2대를 긴급히 배치했다.

산불전문 진화차는 주행 중 방수를 할 수 있어 산불 진화에 특화된 소방 차량이다. 수심 1.2m에서도 주행할 수 있는데, 주행하면서도 90m까지 방수를 할 수 있다.

특히 차체가 높고 사륜구동이어서 언덕을 오르거나 험로를 주행하는 능력도 탁월한데, 당시 화재 진압에는 이런 장점이 제대로 발휘됐다.

마을 주변 산림이 상당 부분 탔지만, 마을의 주택은 40여채 중 2채만 전소됐고 2채는 일부만 타는 수준으로 피해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런 성과에는 미리 주택 주변 등에 물을 뿌리는 '예비 주수' 조치를 한 것도 큰 역할을 했다.

산불전문 진화차는 지난달 경북 영덕군의 산불에서도 활약했다. 소방청은 내년까지 산불전문 진화차 17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울트라급 방사 능력을 갖춘 '대용량포 방사시스템'도 이번 화재에서 활약하고 있다.

산불 초반 불이 한울원자력발전소와 삼척 LNG 생산기지를 향해 빠른 속도로 이동하자 투입돼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은 1분에 7만5천ℓ의 소방용수를 130m까지 방수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분당 4만5천ℓ와 3만ℓ를 방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2세트 구성됐다.

방수포, 주펌프, 중계펌프, 수중펌프, 트레일러, 지게차, 포소화약제 탱크차 등 17대의 장비가 결합한 형태다.

방수 능력이 대형펌프차(분당 2천800ℓ) 26대가 한꺼번에 방수하는 수준이다. 수중펌프를 활용하면 호수나 하천, 해수를 소방용수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작년 12월 처음 도입된 뒤 올해 1월 울산119화학구조센터에 배치됐는데, 이번 산불에서 위험 상황을 막을 마지막 보루로 든든한 존재감을 보였다.

소방당국은 대형화재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고층빌딩, 대형물류창고, 재래시장, 산업시설 등 대형 공간에서의 화재를 진압하도록 인명구조용 드론을 개발 중이며 화재진압과 24시간 감시기능을 갖춘 소방 로봇도 연구하고 있다.

소방청은 "대형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했던 장비 투자가 산불 진화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며 "장비의 성능은 재난 대응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산불 현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사투 벌이는 특수진화팀

[앵커]

산불이 나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산림청 진화대와 119 소방대원인데요.
특히 위험을 무릅쓰고 산불현장 가장 가까이 투입되는 각 기관 특수진화팀이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이들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깜깜한 밤, 깊은 산 속 시뻘건 불길을 마주한 사람들.
불꽃이 휘날리고 불길이 솟구쳐도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산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특수 진화대입니다.

같은 시각, 민가와 맞닿은 산불 현장에서는 환동해 특수재난대응단이 불길을 막습니다.
강풍을 타고 산을 집어삼킨 불길을 잡기 위해 물대포를 쏟아붓습니다.

대형산불 현장 최일선에서 화마와 벌이는 특수진화팀들의 악전고투는 낮에도 이어집니다.
큰 불길을 잡은 산불현장, 특수진화대를 찾아 산을 올랐습니다.
등산로는 물론 임도도 찾아볼 수 없는 가파른 산비탈.
현장까지 수백 미터, 산 아래 차량과 이어진 호스를 끌고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겨! 영차!"

능선을 넘어 도착한 산불 현장.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피어오르는 연기,
가파른 경사면은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지만, 대원들은 실 틈이 없습니다.

깊은 산 속 산불이 발생한 곳에서 직접 올라와 산불을 끄는 사람들, 바로 특수진화대입니다.
헬기투입은 물론 접근이 어려운 산불현장 최일선에서 묵묵히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 좀 확인해주세요. 물이 잘 안 나옵니다."
"물 다 됐어요. 끊고 물 받아오겠습니다, 이상."

차량에 물이 떨어져 다시 채워놓는 십여 분 사이에 잠시 목을 축이는 게 전부.
점심 도시락조차 무거워 가져오지 못했고, 끼니를 거르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나승표 / 산림청 산불재난특수 진화대 : 끄는 건 어렵지 않은데, 말씀드렸다시피 바람 때문에 꺼졌던 불이 다시 살아나고 더 번졌을 때 좀 많이 힘들죠.]

민가 주변 진화를 마무리한 환동해 특수재난대응단 역시 곧바로 산불 현장에 다시 들어갑니다.
강한 수압에 균형을 잃고 넘어져도 금세 다시 일어나 불길을 잡습니다.

[권학주 / 강원소방본부 환동해 특수재난대응단 : 산불진화라던가 재난 대처는 저희 본연의 임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산불이) 전 국민이 다시 한 번 (산불 조심) 각오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언제나 시뻘건 불길을 눈앞에서 마주해야 하는 산불대응 특수진화팀,
소속 기관은 달라도 산불 현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오늘도 화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언덕 오르고, 움직이며 물대포...마을 지키는 특수장비들



[앵커]

맹렬한 불길이 마을을 위협하고, 소방차 한 대가 쉬지 않고 물대포를 쏩니다. 산불 전문 진화차라는 특수 소방차인데, 산불로부터 마을 하나를 통째로 지켜냈습니다.

이번 산불에서 활약하고 있는 특수 진화 장비들을 조승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산에 시뻘건 불꽃이 넘실거립니다.
 주위에 가득 찬 연기조차 붉게 만듭니다.
 불구덩이 속에 한 마을이 통째로 갇혔습니다.

[최동광/마을 주민 : 불이 내려오는 게 폭포, 딱 폭포하고 똑같았습니다. 확 쏟아져 내려오더구먼...]

이 마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산에서 내려와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40가구 가운데 이렇게 완전히 불에 탄 집은 단 두 곳뿐입니다.
 다른 집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둘러싼 산은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여기 진화 작업에는 독특한 모양의 소방차가 선두에 있었습니다.

'산불 전문 진화차'입니다.

민가를 위협하는 불머리에 강한 물줄기를 명중시킵니다.
 1분에 최대 3600리터 물을 쏠 수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물을 뿌릴 수 있고 언덕을 오르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이번 화재처럼 강한 바람이 부는 현장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김재효/강원도소방본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 방수포, 고압 방수가 있어서 일반 펌프차보다는 바람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대당 8억 원 정도 하는 산불 전문 진화차는 전국에 7대 있습니다.
 내년엔 20대 더 늘릴 계획입니다.

산불은 원전과 LNG 기지도 위협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울산에서 가져온 대용량 방수포를 앞세워 방어선을 지켰습니다.
 1분에 7만5000리터, 소방차 26대분의 물을 쓰는 물대포입니다.

2019년 고성 산불 당시 가스 충전소를 지켜냈던 트랜스포머 소방차 로젠bauer판터는 이번에도 활약했습니다.
 이런 특수 소방 장비는 산불 진화 효율은 높이고 위험은 줄입니다.

갈수록 빈번해지는 대형 산불에 특수 장비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진화인력 6,065명·헬기 포함 장비 486대 투입

도 가용 인원·장비 총동원
강원경찰청 교통 통제 순찰
육·해·공군도 수천명 지원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산불 진화를 위해 관·군이 투입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강원도 산림 당국에 따르면 6일 오후 3시30분 기준으로 강릉, 삼척, 영월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를 위해 투입된 인원은 공무원 1,883명, 소방 775명, 산불진화대 892명 등 총 6,065명에 이르고 있다. 진화작업에 동원되고 있는 장비도 헬기 90대 등

486대에 달한다. 강원경찰청에서는 8개 기동대에서 600여명을 투입, 산불진화작업을 지원하고 교통통제와 피해지 범죄예방순찰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동해안 울진·삼척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군도 장비와 병력을 지속해서 투입하고 있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현재 강원·경북지역 산불 진화를 위해 항공사령부 등 3개 부대의 CH-47 등 헬기 22대, 병력 1,400명을 투입해 진화작업과 대민지원을 벌이고 있다. 해군 역시 이날 동해 1함대 소속 소방차 12대, 구급차 1대,

장병 1,00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과 주민 이송작업을 벌였다. 공군은 제18전투비행단 소속 소방차와 제독차 등 차량 11대와 장병 130여명, 제6탐색구조전대 소속 헬기 4대 등을 산불 현장에 투입했다.

한편 강원도는 7일과 8일 이틀간 강릉 옥계와 삼척 원덕에 204명의 지원 인력을 파견한다.

이들은 7일 102명, 8일 102명씩 이틀에 걸쳐 파견되며 주불이 진화된 지역에서 잔불 정리를 맡는다. 강원도는 지원인력에게 등짐 펌프와 갈퀴 등의 개인 진화장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최기영·권순찬기자

전국 소방 동원령에 곳곳에서 집결한 소방대원들



[앵커]

경북 울진에서 발생해 강원 삼척까지 번진 산불 진화를 위해 전국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집결했습니다.

뜨거운 화염과 매캐한 연기 속 소방관들은 사투를 벌였고, 군 장병의 지원도 이어졌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붉은 소방차가 동해 해변 주차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새벽 진화를 마치고 다시 출동 지시 무전을 기다립니다.

지역도 소속도 제각각.
서울과 경기, 부산과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정해빈 / 소방사 (전북소방본부) : 지금 저희는 잔불 위주로, 계속 번지고 있으니까 그쪽 위주로. 다섯 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되게 멀죠? 오실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당연히 당연히 왔죠.]

1분 1초를 아끼려고 밤새 전국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좁은 소방차 운전석이 그나마 쉬는 장소, 하지만 잠시 틈도 없습니다.

불은 여기저기서 피어오르고 사람은 늘 모자랍니다.
이번에 모인 소방차 가운데에는 고성능화학차도 있었습니다. 특수 진화 차량인데 무엇보다 많은 용량의 물을 뿜을 수 있어 울진 원전이나 삼척 LNG 생산 기지 방어에 배치됐습니다.

[천정훈 / 소방장 (중앙 119구조본부) : 이게 1만 리터의 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량의 물을 한번에 방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은 항상 위험합니다.
골짜기 경사는 높고 매캐한 연기에 녹초가 되고 온몸엔 그을음이 묻습니다.
시가지까지 뺨은 화마에 인근 군 장병도 손을 보탬니다.
울진과 삼척, 강릉과 동해, 영월에서 난 산불에 투입된 소방대원은 연인원 5천여 명에 이릅니다.

지역도 소속도 다르지만 항상 거센 불길에 맞서야 하는 소방대원.
언제나처럼 숲 검댕을 뒤집어쓰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불 현장의 하루는 그렇게 지나갑니다.

YTN 지환입니다.

'한 그루라도 살리자'..불에 맞선 소방대와 주민

산불이 난 현장에서는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살리기 위한 사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소방대원들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 산림청 산불재난 특수진화대까지... 화마에 맞선 대원들을 김상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끊임없이 치솟아 오르는 불꽃.

실 새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헬기가 뜨지 못하는 밤사이 산속 마을마다 방어선을 구축하는 건 지상대원들의 몫입니다.

산비탈을 따라 불길이 마을을 위협하자, 소방대원들이 무거운 호스를 끌고 산을 오릅니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경사가 심한데요, 소방대원들은 힘닿는 곳까지 올라가 잔불을 진화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확보한 다음 대원들을 따라 산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먼저 소방대원들이 방수포와 호스로 큰 불길을 잡으면, 다음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원들의 차례.

갈퀴를 이용해 솟덩이로 변해버린 나무를 짓누르고, 흙으로 덮어 남은 불씨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남진산/삼척 하장 의용소방대장]

"불이 나면 일어있던 돌들이 굴러 내려오고 이러니까 위험하죠. 항상 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미끄러질 듯 나무에 의지해 위태로운 작업을 이어가고, 소방대원들도 호스를 나무와 몸에 감아 안전을 확보합니다.

[김현호/삼척 소방대원]

"보통 저희 로프를 이용해서 몸을 지지한 상태로 고정해서 다니고 있고요."

길이 좁아 소방차가 접근하기 힘든 곳에는 산불특수진화대 차량이 들어가야 합니다.

1톤짜리 물탱크를 가지고 긴 호스를 연결해 구석구석까지 물줄기를 뿌립니다.

차에서 쪽잠을 자며, 벌써 사흘 밤낮을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김형운/삼척 도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밤에도 (불이) 내려오면서 지금 3일째 (진화)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불이) 내려오면 밤에도 가서 고고 진화하고 잔불정리 다 하고 또 내려오고..."

거센 불길에 숨이 막히고, 연기에 시야가 막혀 불안해도 화마에 맞서고 있는 이들.

[김현호/삼척 소방대원]

"<넘어지시거나 좀 위험하시진 않나요?> 원래 현장이라는 게 다 위험해서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불과 싸우고 불을 피하고..지옥 같던 '7번 국도'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이번 산불은 동해안과 나란히 달리는 7번 국도를 따라서 북으로, 다시 남으로 번져 갔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도로는 차량 통행이 통제됐고, 국도 주변 해안가의 마을과 펜션에선 화마와의 싸움이 한창이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이 7번 국도를 따라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강릉에서 7번 국도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하늘과 도로가 점차 연기로 덮히면서, 한낮인데도 전조등을 켜고 달려야 했습니다.

해군 살수차가 도로변에서 물을 뿌려댑니다.

강원도 삼척과 맞닿은 경북 울진 죽변.

온통 주황빛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유소와 LPG충전소 바로 뒤까지 불이 옮겨 붙으면서 소방대원들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비상 활주로에선 헬기 수십대가 오가며 연료를 공급받고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국도로 못 가요. 국도로 못 갑니다."

여전히 곳곳이 통제된 7번 국도, 해안도로를 타고 계속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산불은 7번 국도를 넘어 끊임없이 해안가로 덮치려고 시도했고, 해안가 마을 주민들은 고무호스로 물을 뿌려가며 버텼습니다.

불길이 코 앞까지 밀려오자, 급히 옷가지를 챙겨나온 주민.

집을 버리고 대피하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저 발만 구릅니다.

[채은실/마을 주민]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번져가지고.."

바다가 보이는 펜션 지붕 위.

소방대원이 3미터 정도 앞까지 다가온 불길에 맞서고 있습니다.

[장순애/펜션 사장]
"(대피소에서) 주먹밥 만들다가, 엄마 지금 봉사도 중요하지만 펜션이 다 타게 생겼다고..."

부산에서 경남·경북을 거쳐 강원도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7번 국도가 이번에는 화마가 남북을 오가는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초강력 산불, 원전·LNG 위협

<울진 한울원전>

<삼척 LNG기지>



4일 저녁 강원 삼척시 원덕읍 고적마을 일대가 산불로 인해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다. 이날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삼척까지 번지자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고 국도가 통제된 가운데 정부는 산불발생 국가위기관리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삼척시 제공

**울진 산불 강풍 타고 삼척까지 확산
원전·LNG 기지 등 필사적 진압 나서
주택 불 타고 4000여명 긴급 대피
정부, 강원·경북에 재난 사태 선포
“최근 10년 간 최대 규모 피해될 듯”**

경북 울진군 야산에서 4일 오전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삼시간에 번져, 화재 현장 인근 한울 원자력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LNG) 기지를 위협하고 있다. 다만 소방당국이 원전과 LNG 기지 인근 화재를 필사적으로 진압하고 있어 현재까지 관련 시설은 화재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산불이 확산하면서 정부는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고, 오후 10시부터 강원·경북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중대본 등에 따르면 화재는 울진군 북면 야산

에서 오전 11시 17분쯤 시작됐다.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바람을 타고 7번 국도를 넘어 동쪽 바닷가 쪽으로 번졌고, 급기야 동해안 쪽 북면 부구리 일대로 확산됐다. 부구리에는 한울원전 6기와 신한울 원전 2기 등 총 8기의 원전이 있다.

이날 오후 8시 30분 현재 주택 22채, 창고 5곳, 비닐하우스 4개가 불에 탔고 주민 등 3,950명이 인근 마을회관과 학교 등으로 대피했다. 산불로 인해 북면 한국수력원자력 사택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업무가 오후 1시 30분부터 중단됐다.

최초 발화지점은 원전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지만, 화재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 일부 불씨가 원전 주변 시설로까지 번지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원전 인근에 '대용량포 방사시스랩'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산불 확산 속도가 줄어들지 않아 소방당국은 이날 밤에도 진화를 멈추지 않고 야간 방재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산불로 원전 인근 마을은 정전된 상태다.

화재 현장 인근에는 강한 남서풍이 불고 있어 화재가 북동쪽으로 번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가 도 경계를 넘어 강원 삼척시 쪽으로 번지자, 소방당국은 삼척시 LNG 기지 주변에 다수의 소방차를 투입해 대비했다.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 등 주민 1,000여명이 대피했고, 동해안 주요 도시를 잇는 국도 7호선 구간도 일부 폐쇄됐다. 삼척시는 LNG 기지 바로 아래에 있는 가곡천을 최종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시청 소속 공무원 동원령을 내려 화재 확산에 대비했다.

산립당국은 이번 산불 영향 구역이 울진 3,240ha, 삼척 60ha 등 3,300ha로, 최근 10년 간 최대 피해 규모라고 밝혔다. 산불은 삼척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방청은 전국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소방차 총 105대를 배치했다. 특히 한울 원전에는 고성능 화학차 등 소방차 24대를 집중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울진=김정혜 기자 삼척=박은성 기자 <10면에 계속>

'확산 걱정 없는 마지막 밤 되길'...강원 야간 진화



숲을 지켜라
(중해=연합뉴스) 6일 오후 강원 동해시 비천동 비천골에서 강원도소방본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대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2022.3.6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강릉·동해·삼척·영월=연합뉴스) 유형재 배연호 양지웅 박영서 기자 = 강원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6일 주불진화에 난항을 겪은채 세 번째 밤에 접어들며 산림 당국이 야간진화체제에 돌입했다.

산림 당국은 약 4천 명을 투입해 큰 불길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하며 민가와 시설물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당국은 진화인력 중 80%가 넘는 3천300여 명을 강릉지구와 동해지구로 나누어 배치했다.

화선이 강릉 옥계면 남양리에서부터 이곳과 인접한 정선 백복령 인근을 거쳐 동해 초록봉까지 10km가 넘어 가장 길다.

이에 강릉지구 인력 중 대다수가 옥계면 남양리 마을에 집중돼있다.

동해 대진동 봉화대산 인근에도 불길이 남아 있어 진화인력을 배치했고, 망상동 아래 묵호동과 동호동 부근 산불 진화는 완료됐으나 인력을 두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 중이다.

울진 산불이 번진 삼척은 원덕읍 월천리, 산양리, 사곡리에 불길이 남아 있다.

당국은 진화인력 238명 중 199명을 사곡리에 배치해 중점진화하고 있으며, 월천리와 산양리에는 소규모 인력을 두고 불씨를 감시하고 있다.

영월에는 226명을 민가 주변과 화선 주변에 배치해 야간진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산림당국은 7일 날이 밝는대로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 주불을 진화한다는 목표이다. 진화 헬기 42대, 인력 5천여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은 강릉·동해 4천ha, 삼척 400ha, 영월 80ha로 집계됐다.

이를 모두 합하면 여의도 면적(290ha·윤중로 제방 안쪽 면적) 15배가 넘고 축구장 면적(0.714ha)으로 따지면 6천274배에 달한다.

진화율은 강릉·동해 50%, 삼척 30%, 영월 50%를 보인다.

재산피해는 강릉 옥계가 주택 등 10채가 전소됐고, 동해에서는 70채가 전소되고 24채가 일부 불에 타는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삼척에서는 주택·군 소초 각 1채가 전소됐고, 삼척 원덕읍 고포마을회관 1층도 일부 소실됐다.

소방관들 쪽잠자며 컵라면으로 끼니 ... 처우개선 시급

동해지역 산불이 장기화되면서 산 불 현장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대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해소방서에 따르면 동해산불을 잡기 위해 부산을 비롯, 서울, 경기 등 전국 곳곳에서 장비 94대와 소방관 231명이 동원돼 진화작업을 벌였다. 최대 5시간이 넘는 이동거리 탓에 인력 교체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뜨거운 화염과 매캐한 연기 속에서 진화에 나선 이들은 소방버스

나 좁은 소방차에서 쪽잠을 자는 것이 휴식의 전부였다. 게다가 지역 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서 급하게 마련한 컵라면과 김밥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상황이 연속됐다.

특히 산불 특성상 강한 바람을 타고 옮겨다니며 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데다 야간에는 산행조차 불가능한 지역까지 이동해야 해 안전사고 위험도 따르고 있다. 또한 울진과 삼척, 강릉, 영월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 인력과 장비를 집중해

진화작업을 벌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부 소방대원은 “항상 긴장된 상황에서 편하게 쉴 수도 없지만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부족해 장기화될수록 체력적인 한계에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5일 밤 동해산불 진화 상황을 보고받으며 “장거리 출동과 진화작업에 지원 대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동해=김천열기자

동해산불 현장 찾아 피해 막은 양양소방서 이상호 과장

【양양】양양소방서 이상호 방호 구조과장이 비상근무 후 퇴근 길에 동해 산불 현장을 찾아 산 불 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상호 과장은 지난 5일 오전 비상대기근무를 마친 후 강릉의 집을 지나 동해 산불 발생지역으로 향했다. 소방공무원으로서 평소 지니고 있던 사명감이 작용한

것이다. 그 당시 연한 갈색 연기에 도시 전체가 뒤덮인 상태에서 동해시의 관문인 발한동 사문재 삼거리 교차로 앞에 갑작스럽게 불티가 날아와 주택으로 옮겨불고 있었다. 강릉이 남쪽 주택단지 쪽으로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현장과 붙어 있던 30여 주택과 주유소를 태울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 이 과정은 이 상화

를 목격하고 바로 현장지휘를 실시했다. 당시 동해소방서 펌프차량은 삼척과 강릉에 지원을 나가 차량이 몇 대 없었다. 이 과정은 사복 차림이었지만 도로 한복판에 서서 타 지역에서 온 소방차량 등을 세워 진화하게 만들었다. 인근 주민과 의용소방대와 함께 7시간에 걸쳐 진화장구없이 산불을 진화했다. 이규호기자

밤에도 계속되는 산불과의 사투



(동해=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5일 저녁 산불이 확산한 강원 동해시 대진동에서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2022.3.5 momo@yna.co.kr

영웅의 뒷모습



(삼척=연합뉴스) 7일 오후 강원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에서 강원도소방본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소속 대원이 산불 진화를 위해 호스릴 장비들 끌고 있다. 2022.3.7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불진화대원이 짊어진 무게



(삼척=연합뉴스) 7일 오후 강원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에서 강원도소방본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소속 대원이 산불 진화를 위해 호스릴 장비들 끌고 있다. 2022.3.7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숲을 지켜라



6일 오후 강원 동해시 비천동 비천골에서 강원도소방본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대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삼척 산불 나흘째 진화



7일 오전 강원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에서 소방대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2022.3.7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 산불 나흘째 진화



7일 오전 강원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에서 소방대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2022.3.7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 비천골 산불 진화



(동해=연합뉴스) 7일 강원 동해시 비천골에서 소방
대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2022.3.7 [강원도
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 비천골 산불 진화



(동해=연합뉴스) 7일 강원 동해시 비천골에서 소방
대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2022.3.7 [강원도
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숲을 지켜라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대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숲을 지켜라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대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숲을 지켜라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대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숲을 지켜라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대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소방대원들 삼척 산불 진화 안간힘



(삼척=연합뉴스) 6일 강원 삼척시 원덕읍에서 소방대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2022.3.6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방대원들 삼척 산불 진화 안간힘



(삼척=연합뉴스) 6일 강원 삼척시 원덕읍에서 소방대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2022.3.6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소방, 산불 대피 어르신 건강 확인



강원도소방본부 119구급대원들이 6일 강원 삼척시 원덕읍 원덕행정복지센터에서 102세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강원소방, 산불 대피 어르신 건강 확인



강원도소방본부 119구급대원들이 6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마을회관에서 대피 주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강원소방 항공대, 강릉옥계 산불진화 구슬땀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6일 오후 강원도소방본부 항공대 조종사가 강원 강릉시 옥계면 남양3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물을 투하하고 있다. 2022.03.06. photo31@newsis.com

서울소방본부 항공대, 강릉서 산불진화 구슬땀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6일 오후 서울소방재난본부 항공대 조종사가 강원 강릉시 옥계면 남양3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물을 투하하고 있다. 2022.03.06. photo31@newsis.com

바닷물로 산불진화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6일 오후 강원도소방본부서울소방재난본부 항공대 조종사들이 강원 강릉시 옥계면 남양3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투하할 물을 담수하기 위해 인근 바다로 비행하고 있다. 2022.03.06. photo31@newsis.com

대용량 방사포 투입된 삼척 LNG 기지



[삼척=뉴시스] 이덕화 기자 = 지난 4일 낮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불이 강원 삼척까지 번진 가운데 소방당국이 호산리 LNG 기지에 대용량 방사포를 투입하며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2022.03.05. wonder8768@newsis.com

산불 방어선 지키는 소방차들



7일 오전 강원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에서 산불이 확산하는 것에 대비해 소방차들이 방어선을 지키고 있다.

산불 방어선 지키는 소방차들



7일 오전 강원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에서 산불이 확산하는 것에 대비해 소방차들이 방어선을 지키고 있다.

동해안 산불 잡아라...전국에서 모인 소방차



(동해=연합뉴스) 양지용 기자 = 강원 곳곳에서 사흘째 산불이 이어지는 6일 새벽 강원 동해시 망상해변 인근에 강원을 비롯해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파견한 소방차들이 집결해 있다. 2022.3.6



동해안 산불 잡아라...전국에서 모인 소방차



동해안 산불 잡아라...전국에서 모인 소방차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든든한 지원군



(동해=연합뉴스) 강원 곳곳에서 사흘째 산불이 이어지는 6일 오전 동해시 망상컨벤션센터 자원집결지에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소방차 등이 급수지원과 추가 배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3.6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든든한 지원군



(동해=연합뉴스) 강원 곳곳에서 사흘째 산불이 이어지는 6일 오전 동해시 망상컨벤션센터 자원집결지에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소방차 등이 급수지원과 추가 배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3.6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마을 덮친 산불 지난 4일 밤 삼척시 원덕읍에서 주택으로 밀려오는 산불 격정에 주민들이 촛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사진=권대명·박승선기

거대 화마의 습격에 주민들은 뜯 눈으로 밤 지새웠다



불길 막아라 지난 4일 삼척시 원덕읍 일대에 소방차량과 장비가 동원돼 불길을 막기 위해 인간힘을 쏟고 있다.



연기에 휩싸인 마을 5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릉 옥계면 남양리 일대가 짙은 연기에 휩싸여 있다.



불타버린 주택 강릉 옥계에서 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통해 도심 방향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이 옮겨붙어 불타버린 주택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진화작업 구슬땀 5일 강릉 옥계면 남양리 일대에 산불이 발생하자 헌전 사회봉사단 산불진화대가 화재현장에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분주한 진화 헬기 5일 강릉 옥계에서 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통해 도심 방향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 진화 헬기가 6일 화염을 뚫고 불을 끄기 위해 운항하고 있다. 민석기/사진기



연기로 가득 찬 도심 5일 강릉 옥계에서 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통해 도심 방향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동해시내 일대가 산불로 발생한 짙은 연기로 가득 차 있다.



불안해하는 강아지 5일 강릉 옥계에서 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통해 도심 방향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인근 마을로 산불이 옮겨붙자 급하게 대피한 강아지가 불에 해 하고 있다.

큰불이 나면 생업 미루고 휴일 반납하고 나타나는 이들



3 산으로, 마을로 불씨 있는 곳엔 어디나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전문 소방인력 말고도 진화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 생업을 이어가다가 위급한 화재 현장에 출동해 소방호스를 잡아주고 잔불 정리를 돕는 의용소방대인데요.

G1 방송 정창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파른 산길을 쏘살같이 오릅니다.
잡아주는 손이 없으면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은데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불이 휩쓸고 간 땅에 설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윤둔희/원덕의용소방대원 : 만져보면 따뜻하거든요. 이러면 불씨가 그냥 살아 있어요.]

불만 끌 수 있다면 소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방은 펌프차를 이용해 물탱크에 급수를 지원합니다.
의용소방대와 산불전문진화대는 서로 도와가며 화마가 지나간 자리에 잔불을 정리합니다.

주택으로 변진 불도 의용소방대의 몫입니다.

고압으로 뿌리는 호스를 잡아주는 역할부터, 진압이 된 뒤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김정오/옥계의용소방대장 : (소방차) 길 안내, 외지에서 경기도 쪽에서 (소방인력이) 많이 오고 다른 지방에서 많이 오니까, 그 차에 한 명씩 타서(일을 돕습니다.)]

각지에서 모인 의용소방대원들은 1천400명이 넘습니다.

다들 생업이 있지만, 휴일을 반납하고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박남옥/옥계의용소방대장 : 미안해요, 옥계에서 불이 자주 나니까. 다른 도, 다른 리에서 (다른 의용소방대원이) 많이 오니까...]

빨리 진화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삼척의 경우 의용소방대와 산불진화대가 투입하기에는 고립 위험성이 높은 급경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오히려 가지 못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산불 현장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산 아래에는 자원봉사자들이 힘보태



앵커)

며칠째 대형 산불이 이어지면서 산림·소방 인력만으로는 진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불 현장에는 의용 소방대원들이, 산 아래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봉사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콘크리트 뼈대만 남은 집에는 다 타버린 가구 철기둥만 나뒹굴 뿐 집기들은 흔적도 없이 타버렸습니다.

동해 도심까지 화마가 휩쓸고 간 지난 5일, 박병길 씨가 이웃 마을로 불을 끄러 3시간 남짓 자리를 비운 사이,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든 불씨가 박 씨의 집을 몽땅 다 태웠습니다.

[박병길 / 강원도 동해시 어달동]

"거기서 불 끄고 끄다 보니까 무전이 오는 거예요 119에서 화약고에 지금 난리 났대요. (집에) 오니까 늦은 거예요."

나흘째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동해시 삼화동 비천마을.

의용소방대원들이 등짐펌프를 메고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잔불을 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산림 소방당국과 지자체는 물론이고, 의용소방대 등 민간까지, 천여 명이 투입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을 한쪽 분교였던 자리에 차려진 임시 지휘 본부에서는 전국에서 온 봉사자들이 진화 인력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힘냅시다! 힘내자! 힘내자!"

인근 카페는 영업장을 개방했습니다.

[이병욱 / 카페 운영]

"아예 화장실도 다 열었는데 지금은 다 막혔고, 어제 제가 시청에 요구해서 화장실을 두 동을 빌려왔어요."

시멘트 공장 직원 1백여 명도 힘을 보태기 위해 바쁘게 산을 오르내립니다.

[김태현 / 쌍용시멘트 품질관리팀]

"출근하면서도 봤고 한 번씩 등산하면서도 봤던 산이고 나무들이고 한데, (들어가서 보니까) 다 타고 재가 되고 쓰러진 나무들도 있고..."

갑작스러운 재난에 삶의 터전이 다 타버렸지만 가족 같은 마음으로 힘을 보태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생업 미루고 산불진화 나선 의용소방대... 닳새째 밤낮 사투

헬기 접근 힘든 험준한 산악 투입 밤새 추위와 싸우며 도시락 끼니 산불특수진화대도 최전선 맹활약

경북 울진과 강원도 동해 등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계속되는 산불 현장의 최전선에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 화마(火魔)에 맞서 연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산불이 시작된 지난 4일부터 울진과 삼척, 동해 등지에 투입돼 닳새째 강행군을 이어오고 있다.

산세가 워낙 험난한 것도 힘들지만 밤새 추위와 싸워야 하는 고통은 이들을 더 시지게 한다. 하지만 하루라도 더 빨리 불을 꺼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을 돌릴 틈도 없다.

헬기가 뜨지 못하고 산불 확산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직접 진화에 나선다. 최후방어선에 서있는 셈이다. 공수해 오는 끼니로 배를 채우고 차 안에서 쪽잠을 자며 버티고 있다.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소속 신재

웅(55)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은 8일 “수많은 산불 현장에서 바람을 등지고 화마와 맞서왔지만, 이번에는 유독 바람 방향이 급격하게 바뀌는 탓에 고립이 될 뻔한 위험한 순간이 많았다”며 “밤사이 정신없이 진화하다가 날이 밝으면 급격한 비탈길을 어떻게 올라왔는지 놀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산림청 소속의 산불에 특화된 전문대원들이다. 현재 전국에 435명이 활동 중이다. 북부·동부·남부·중부·서부지방산림청 전국 5개 본부에 소속돼 활동한다. 이들은 헬기 진입이 힘든 깊은 산속에 투입해 산불을 끄고 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은 물을 실은 산불 진화 차량으로부터 가늘고 긴 호스를 최대 1km까지 연결해 화마에 맞선다. 헬기 진화작업을 멈춘 시간부터는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불이 더 확산하는 것을 막는다.

의용소방대원들의 활약도 못지 않다. 이승교(55) 동해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대장을 비롯한 의용소방대원 40여명은 8일에도 강원도 동해시 신흥동의 한 야산에서 산불과 사투를 벌였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원이 7일 밤 경북 울진군 북면 안말레길에서 근강소나무 숲을 지키기 위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이들은 15l의 물이 가득 담긴 무거운 등짐 펌프를 메고 산 속을 뛰어다녔다. 일부는 불길위로 땅을 긁으며 남은 잔불을 없앴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대원들은 잠시도 쉬지 않았다. 이들은 산불 현장에 도착해 헤가 질 때까지 불을 끄는 일을

나흘째 반복하고 있다. 생업도 포기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학원이나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고두직업을 갖고 있다. 이승교 연합대장은 “모두 생업이 있지만 모두 문을 닫고 산불 현장으로 출근하고 있다”며 “깊은 산속에 물을 나르

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지원해 준 대원도 있다”고 말했다.

산불 제거만 하는 게 아니다. 주민 대피, 주택으로 번진 불을 끄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지난 5일에는 불길의 동해의 한 요양병원으로 번진다는 소식을 듣고 환자 70여명을 대피시켰다.


울진의 의용소방대원들도 평일인데도 350여명이 각자 휴가를 내거나 생업을 마치고 오후에 출동한다. 이들은 저녁 8~10시까지 불을 끄고, 이후엔 새벽 1시까지 산불 감시를 한다.

김성찬(56) 울진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고향을 지키려면 힘들어도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울진사람이니까 지리도 잘 안고 더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관이 아닌 소방활동 업무를 보조하는 자원봉사단체다.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소방 업무를 보조해 진화작업을 한다. 이번 산불에 투입된 의용소방대원은 모두 1400여명에 달한다.

동해·울진=서승진 최일영기자 siseo@kmb.co.kr

큰 불길 10여차례 막아...산불진화 숨은 주역

 강원 초대형 산불

영월 정승옥·김도수·노윤성씨
액비살포차량 이용 확산 저지
군, 60명 투입 순찰·잔불정리

지난 4일 발생한 영월 김
삿갓면 외룡2리에서 발
생한 산불의 추가 확산을
저지한 숨은 주역들이 알
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정승옥(56·사진) 전 김
삿갓면의용소방대장과 40대 초반 후
배들인 김도수·노윤성대원.

정전대장은 산불 발생 사흘째인 6
일 오전 10시부터 자신이 보유한 7t



정승옥 전 대장과 김도수·노윤성 대원이 산불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액비살포차량을 끌고 대원들과 함께
진화작업에 참여하면서 10여차례의
큰 불길을 진화했다.

오후 들어 순간 최대 풍속 13m의 강
풍이 방향을 바꾸어 해발 922m의 운
교산 아래 남쪽 마을인 외룡1리로 불

길이 번지기 시작하자 의용소방대장
3년 경력의 정 전대장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직감했다. 외룡1리와 주문1
리는 폭이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
어 자칫 불뚱이 주문1리로 튀어 확산
될 경우 인근 해발 1088m의 망경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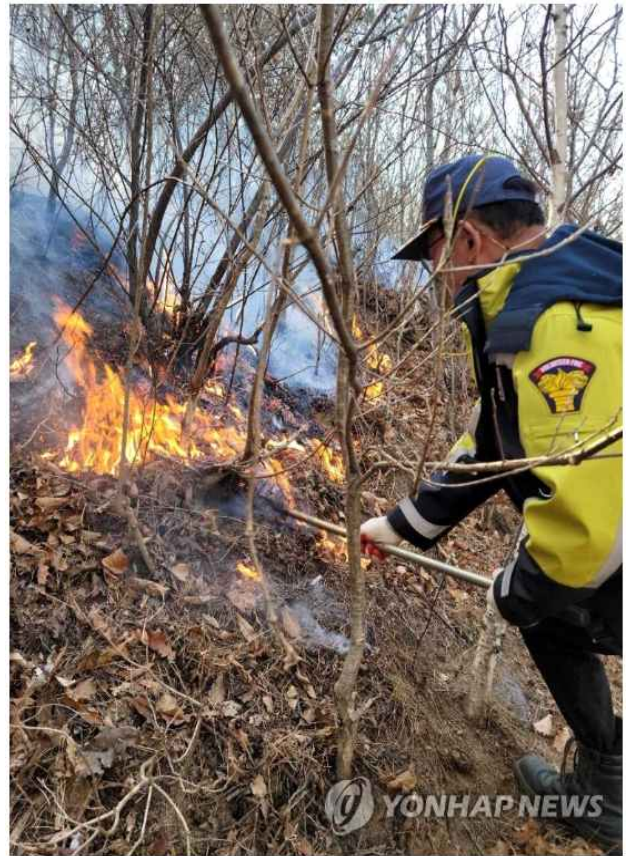
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정전대장 일행이 오후 4시쯤
차량을 끌고 외룡1리로 긴급하게 떠
러가자 때마침 내려온 산불과 짙은
연기로 도로는 앞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급한 상황을 목격했다. 이
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돌진해 5분여
동안 차량에 부착된 1m 호스로 물을
뿌리며 큰 불길을 잡고 나머지 대원
들은 잔불을 정리해 망경대산으로의
확산 차단에 기여했다. 정 전대장은
“김호준 현 대장과 후배 대원들과 호
흡이 잘 맞아 대형 산불 확산 차단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영월군은 9일에도 임차헬기
1대와 산불전문진화대원 60여명을
투입해 순찰과 잔불 정리를 이어갔
다. 방기준 kjang@kado.net



6일 오전 강원 삼척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6일 오전 강원 삼척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6일 오전 강원 삼척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6일 오전 강원 삼척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6일 오전 강원도 강릉 옥계 남양리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 진화 작전을 펼치고 있다.



6일 오전 강원도 강릉 옥계 남양리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 진화 작전을 펼치고 있다.



6일 오전 강원도 강릉 옥계 남양리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 진화 작전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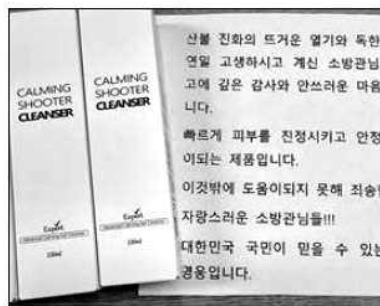
6일 오전 강원도 강릉 옥계 남양리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 진화 작전을 펼치고 있다.

강원 소방영웅들 격려 익명의 기부 잇따라

땃새째 산불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강원도 소방영웅들을 향한 익명의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8일 강원도소방본부는 도내 곳곳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기부자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영월 소방서에서만 3차례의 기부가 있었다. 새벽 4시31분께 빵 140개가 소방서 1층에 놓였고, 오전 9시께에는 “산불화재로 고생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마음을 전달한다”며 익명의 기부자가 음료와 간식을 전달했다.

이어 오전 10시50분께에도 익명의 기부자가 소방서 후정에 음료수를 두고 갔다. 영월소방서 대원들은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산불 진화에 최선



◇강릉소방서에 기부된 화장품.

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7일 낮 12시께에는 삼척 산불현장에 동원된 흥천소방서 직원들에게 인근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전달했다. 햄버거 가게 관계자는 포장지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지치지 말고 조심히 끝나길 기도하겠다’는 응원 글을 남겼다.

강릉소방서에도 5일부터 음



◇영월소방서에 전달된 음료와 간식.

료와 컵라면 등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한 기부자는 피부진정에 도움되는 화장품과 함께 ‘자랑스러운 소방관님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마지막 영웅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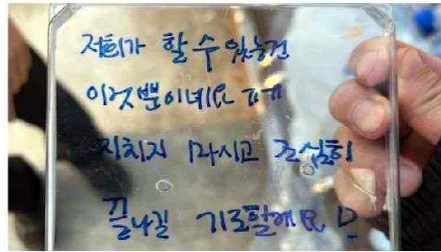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찬기자 sckwon@

[동해안 산불] '힘내세요' 강원 산불 현장 곳곳 온정 물결

햄버거 무상 제공에 익명 기부 간식.음료 산더미
이재민 아픔 어루만지는 봉사.기부 '선한 영향력'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박영서 기자 =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네요. 지치지 마시고 조심히 끝내
길 기도할게요."

경북 울진에서 발화한 산불이 번져 5일째 진화작업이 한창인 삼척의 산불 현장 진화를 위해 투입된 소방
대원에게 전해진 응원 메시지다.



햄버거 포장지에 적힌 손글씨
[강원소방본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 메시지는 지난 7일 낮 산불 현장 인근 햄버거집 주인이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해주는 소방대원에게 무
상으로 제공한 햄버거 포장지에 적힌 손글씨다.

산림 80ha가 소실된 영월에도 신원을 밝히지 않은 3명의 익명 기부자가 소방서를 찾아 기부 물품을 주고
가는 따뜻한 손길이 잇따랐다.

이날 오전 9시께 익명의 기부자가 음료와 간식을 전달한 데 이어 오전 10시 50분에는 음료수를 쏟아놓고
사라졌다.



영월 소방서에 익명의 기부자가 놓고 간 기부 물품
[영월소방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오전 4시 30분께는 누군가 소방서 1층 후문 입구에 빵 140개를 놓고 갔다. 이들은 "산불로 고생하
시는 소방공무원에게 감사하다"며 "드시면서 힘내세요" 등 응원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메케한 연기와 강풍이 몰아친 열악한 환경에도 묵묵하게 진화작업에 나선 진화대원과 집을 잃고 실의에
빠진 이재민을 위한 온정이 8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강원적십자사는 이번 삼척, 강릉, 동해 일대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을 위한 재난구호 활동에 나서고 있
다.

각 지역에 이재민 구호시설을 설치하고 대피소마다 적십자 봉사원을 파견했다.

또 산불 진화인력과 이재민을 대상으로 급식 봉사를 벌이고 있다.



강원적십자사 산불현장 급식봉사 현장
[강원적십자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직원과 봉사원을 포함해 500여 명이 3일간 삼척 2천255명, 동해 870명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했다.

긴급구호품 지원 및 재난구호센터 등을 통해 재난구호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강원도 사랑의열매는 산불피해 지원 특별모금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달 말까지 기부는 특별모금 전용계좌(농협 301-0156-1823-31, 강원도공동모금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별모금을 통해 마련한 성금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피해자 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강원사랑의열매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교나 문화예술 단체 등 민간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 '산불 지역 구호물품 불출 준비로 분주'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8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강원도 등 산불 피해 지역에 보낼 긴급구호 물품을 준비하고 있다. 2022.3.8
tomatoyoon@yna.co.kr

현지사 영산불교대학은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성금 1억180만 원을 기부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현지사 영산불교대학 학생 일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성금을 전해왔다.

앞서 지난 6일 춘천지역에서 공연예술을 하는 4개 단체도 성금을 마련, 온정 나눔에 동참했다.

춘천마임축제, 춘천인형극제, 춘천연극제, 사단법인 프로덕션 도모 등 춘천지역 공연예술 4개 단체는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400만 원을 전달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강원도가 오전까지 집계한 도시락과 생수, 컵라면, 간식 등 생필품과 식료품은 2만1천500점, 담요 1천400여장, 구호키트 415세트에 이른다.



산불 이재민 대피소[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산불로 삼척, 강릉, 동해지역 이재민은 현재 61명, 일시적으로 임시주거시설(26곳)에 대피한 주민은 1천760명으로 집계됐다.

hak@yna.co.kr

이상학(hak@yna.co.kr)

도내 소방관 격려물품 기부 잇따라... “산불 진화 최선”

강릉·홍천·삼척·영월소방서 전달

강원도내 곳곳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기부자들이 산불 진화를 위해 힘쓰는 도내 소방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부물품을 전달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들은 강릉소방서를 방문해 컵라면과 휴지, 화장품 등을 전했고 태진산업개발에선 음료 3박스를 현장에 보내기도 했다.

또 삼척 산불에 동원된 홍천소방서 직원들에게도 인근 햄버거 집에서 무상으로 햄버거를 건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 뿐”이라며 온정의 손길을 보냈다.

삼척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에는 김범교·김연호 어린이 두명이 간식과 생수 1박스를 전달하고 대한항공에선 생수 500박스, 삼척시민안전관리협의회에서 생수 24박스와 두유, 빵 등을 기부했다.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양



도내 곳곳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들이 산불 진화를 위해 힘쓰는 소방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부물품을 전달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사진은 영월소방서에 전달된 빵.

구지회에서 빵과 생수 초콜릿 등을 나눴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도내 기부자들은 영월소방서에도 방문해 빵, 라면, 음료 등 기부물품을 전달하며 “산불로 고생하는 소방관들에게 감사하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영월소방서 직원 일동은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산불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훈



도여협 소방대원 간식 전달 강원도여성협의회는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릉과 동해, 삼척, 영월지역을 순회하면서 진화작업에 힘쓰는 소방대원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간식을 전달했다.

8일째 진화로 지친 소방대원에 배달된 통닭 한 보따리



삼척소방서로 배달된 통닭 50마리
[삼척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이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산불 진화로 고생하는 소방대원들 앞으로 통닭 한 보따리가 전해져 잔잔한 감동을 준다.

11일 삼척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삼척소방서로 통닭 50마리가 배달됐다.

소방대원들이 전화로나마 감사 인사를 전하려 했으나 기부자는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

삼척소방서 직원들은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고 큰 격려가 됐다"며 "산불을 완전히 진화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해 삼척으로 번진 산불은 이날 현재까지 주불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삼척소방서 "산불진화대원 식사 무료 제공 원덕읍 중식당에 감사"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지난 4일 경북 울진 두천리에서 시작한 산불이 강원 삼척으로 확산되면서 열흘 가까이 진행됐던 산불진화 작업 중 삼척 원덕읍에 자리잡고 있는 중화요리집 '영화춘'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미담이 되고 있다.



14일 삼척소방서에 따르면 중화요리집 영화춘 대표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산불 현장에서 화재 진압과 민가 보호를 하던 소방공무원 등 170인분의 식사 값을 받지 않았다.

영화춘 대표는 소방공무원이 식사 값을 지불하려고 하자 "식사비용은 받지 않겠다. 산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소방공무원 등 진화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또 덕풍계곡 야영장에서도 야간 진화대원들이 잠시 쉴 수 있도록 덕풍야영캠프 방갈로 5개와 전기 등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삼척소방서 직원들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장기간 지속된 산불 현장에서 버틸 수 있었다"며 "받은 도움들을 잊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강원 진화 나흘째 총력전...바람 '뚝' 주불 제압 기회(종합)



산불 방어선 지키는 소방자들

(강릉·동해·삼척·영월=연합뉴스) 유형재 배연호 양지웅 박영서 기자 = 강원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나흘째를 맞은 7일 산림 당국이 날이 밝음과 동시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주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 당국은 이날 오전 6기 47분께 진화 헬기 42대, 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강릉 옥계와 동해에 헬기 28대와 인력 3천300여 명을 집중해서 투입하고, 삼척과 영월에는 각각 6대·1천500명, 8대·400명을 투입해 화마(火魔)에 맞서고 있다.

동해안에는 바람이 초속 1~2m로 약하게 불고 있고, 영월은 초속이 0.5m에 불과해 당국은 산불진화 최적의 기회로 보고 있다.

바람이 약하게 불면서 삼척 원덕읍 사곡리 등 골이 깊은 곳에는 연기가 안개처럼 깔려 있어 연기가 걷히는 대로 헬기를 투입해 진화에 나설 계획이다.

당국은 밤사이 불길에 있는 곳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하며 민가와 시설물 보호에 집중했다.

산불피해지 모두 바람이 1m 안팎으로 관측될 정도로 잦아들어 확산하지 않았다.

한때 동해 신흥동 신흥마을 주민들이 멀리 보이는 불길을 보고 불안해하면서 동해시가 대피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보내고, 소방차도 마을에 배치했으나 긴박한 상황은 없었다.

도내 전역에 내려져 있던 강풍특보는 전날 해제됐다. 건조특보는 영동과 영서 모두 여전히 발효 중이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은 강릉·동해 4천ha, 삼척 400ha, 영월 80ha로 집계됐다.

이를 모두 합하면 여의도 면적(290ha·윤중로 제방 안쪽 면적) 15배가 넘고 축구장 면적(0.714ha)으로 따지면 6천274배에 달한다.

진화율은 강릉·동해 50%, 삼척 30%, 영월 50%를 보인다.

재산피해는 강릉 옥계가 주택 등 10채가 전소됐고, 동해에서는 70채가 전소되고 24채가 일부 불에 타는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삼척에서는 주택·군 소초 각 1채가 전소됐고, 삼척 원덕읍 고포마을회관 1층도 일부 소실됐다.

이재민은 동해에서 20세대 4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강릉과 삼척에서도 7세대 7명, 1세대 2명 등 총 28세대 49명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오늘 중 주불진화를 목표로 가용한 지상·공중진화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며,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산불 진화를 최대한 빠르게 완료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시 주민들 곳곳에서 산불과 사투



[앵커]

강릉시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동해시로 번지고 있습니다.

동해시 주민과 소방대원들은 불을 막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거대한 구름 같은 산불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몇십 미터 앞도 구분하기 힘들만큼 짙은 연기는 동해시 도심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강릉 옥계에서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동해시의 산등성이에 있는 주택과 펜션을 집어삼킵니다.

[김철한/동해시 목호동 : "소화기가 모자라가지고 주민센터가서 펌프를 가져왔는데 두 개를...불이 확 번졌죠.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어."]

마을 주민들은 소화기와 대야까지 동원해 산불을 막아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정상우/ 동해시 목호진동 :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가지고 건너편에 있던 불티가 이리로 날아와서 다 타버린 거 같거든요. (지금 주민들은 다 대피하셨습니까?) 거의 다 대피했습니다."]

동해시 곳곳에서는 화마와의 사투가 벌어집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리며 방화선을 구축합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온 불이 초등학교로 번질 위기에 빠진 겁니다.

강한 바람을 탄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해시에서만 수십 곳에서 산불이 번지다 보니, 전국에서 모인 소방관들조차 제때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최재훈/동해 목호119안전센터장 : "저희가 지금 헬기 요청도 하고 있는데...여기 목호동에 있는 야산이란 야산은 지금 거의 불이 다가갔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온 동네가 지금 뿌옇게 변했습니다."]

시가지를 덮친 화마 소식에 주민들은 보금자리를 뒤로하고 안전한 곳으로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동해와 강릉을 잇는 고속도로와 철도, 국도 일부가 통제되면서 동해시 도심에서 교통체증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강릉 옥계 산불 동해 망상으로 번져...축구장 84개 잣더미



강릉 옥계면 산불-주택 피해
(강릉=연합뉴스) 5일 새벽 강원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일대 산불로 인해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2022.3.5 [강원소방본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hak@yna.co.kr

강릉 옥계면 산불
(강릉=연합뉴스) 5일 새벽 강원 강릉시 옥계면 일대 산림이 불에 타고 있다. 2022.3.5 [강원소방본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박영서 기자 = 지난밤 강원 강릉 옥계면에서 난 산불이 동해 망상으로까지 번졌다.

5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0분께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주택에서 난 불이 인근 산으로 옮겨붙었다.

당국은 진화인력 50명과 소방차 19대를 투입해 초기 진화에 나섰으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산불은 주변으로 빠르게 번졌고, 오전 5시 30분께 동해 망상으로까지 확산했다.

이들 지역에는 현재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며, 습도가 36%로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초속 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고 있다. 순간최대풍속은 초속 19m에 달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축구장 면적(0.714ha) 84배에 달하는 산림 60ha(60만㎡)가 불에 탔고, 주택 4채가 전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 15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70대 여성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동해 망상과 인접한 곳에 있는 요양원 입소자와 직원 100명도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

산림 당국은 해가 뜨자마자 산림청 헬기 3대, 군 헬기 4대, 임차 헬기 2대 등 헬기 9대를 투입해 진화하고 있다.

인력도 공무원, 진화대, 소방대원, 경찰, 군인 등 1천329명이 투입됐다.

한편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 영동고속도로 인근 야산에서 난 산불은 현재까지 산림 3ha(3만㎡)의 피해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26명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강원소방은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를 출동시키는 대응 1단계를 내렸고, 소방청은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해 전국 각지에서 강릉으로 소방력을 집결시켰다.

산림 당국은 날이 밝자마자 헬기 1대와 인력 490명을 투입해 진화하고 있다.

[특보] 강릉·동해 산불 계속..90% 진화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시작돼 동해로 번진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기를 비롯한 진화 장비와 대대적인 인력이 투입되면서, 진화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청초 기자, 강릉-동해 산불 상황 어떤가요?

[리포트]

네, 저는 지금 동해시 백복령과 초록봉 인근 마을에 나와있습니다.

밤사이 불길이 가장 강했던 곳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산 속 깊은 곳에서 지금도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고요.

안개가 낀 것처럼 산 전체가 연기로 자욱합니다.

화면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현장에는 재도 많이 날리고, 매캐한 냄새로 가득합니다.

이곳에 투입된 진화 헬기는 25대입니다.

지상진화 인력 3,700명도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와 강릉의 산불 진화율은 낮 12시 기준 90%입니다.

바람의 세기도 초속 3미터 수준으로 산불 발생 초기보다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순 없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곳에 따라 돌풍이 예보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산간과 주변 민가에 산불이 번질 수 있고, 잔불도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화 인력들은 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낙엽을 치우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산불로 강릉과 동해에서는 주택 등 건물 90여 동이 불에 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 피해 면적은 최대 4천 헥타르로, 축구장 5,600개 규모입니다.

또, 도심을 덮친 불은 거의 꺼지면서 대피했던 주민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27가구 47명은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동해시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김중용/화면제공:강원도소방본부/영상편집:김진호



2022년 03월 05일 (토)
강 원

영월 산불 이틀째 번져...강릉 성산 산불 진화



어제(4일) 영월 김삿갓면에서 난 산불이 강한 바람 속에 이틀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림당국은 오늘(5일) 산림청 헬기 2대와 소방차 18대, 진화 인력 488명을 동원했지만, 순간 초속 15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진화율은 50%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야간에 민가 주변으로 소방차 7대를 배치하고, 내일(6일)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강릉시 성산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17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김문영 mykim@kbs.co.kr

/ 강원 또 초대형 산불 /

인력·장비 총동원... 피해 최소화 안간힘

동해시 종합상황본부 운영 실시간 재난문자 신속 대응 해군 1함대·8군단·해경 등 군경 불길 저지·의료지원

강릉 옥계에서 난 불이 동해 망상동과 묵호 등으로 번지자 동해시가 주민 보호를 위한 행정력을 총동원했다.

시는 지난 5일 새벽 3시부터 종합상황본부를 구성하고 산불 상황 대응에 나섰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민가에 대한 대피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재난문자를 통해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기도 했다. 또 동해시청 버스를 이용해 동해노인요양원 입원환자의 대피를 도왔으며 불길에 고립된 주민 30여명 구조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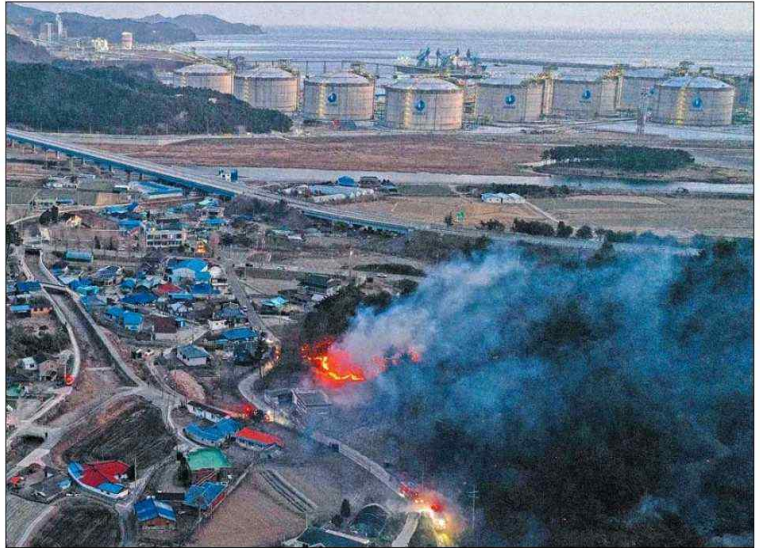
군경도 진화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해군1함대는 5일부터 화재

현장에 소방차 12대와 장병 1,000여명을 투입해 불길을 저지하고 있다. 또한 1함대는 소방차 2대와 병력 50명을 투입하고 동해지역 도심지의 진불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8군단도 1,600여명의 병력과 20여대의 헬기를 투입해 조기 진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삼척 월천유원지 일대와 동해 만우동, 비전골 일대에서 잔불제거작전과 함께 삼척 호산1리 마을회관에서 내과와 한방 의료지원도 진행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동해해양경찰서는 전 직원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산불이 바다 방향으로 확산하는 것을 대비해 자체 소방대를 가



타오르는 불길에 LNG 생산기지 일축즉발 지난 5일 삼척시 원덕읍 LNG 생산기지 일대 앞 산림에서 불길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삼척=권태명기자

동하고 소화전을 개방하는 등 만일에 사태에 대비했다.

김상영 동해부시장은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가용가

능한 모든 인력 및 자원을 동원해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및 인

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동해=김천열기자 history@

/ 강원 또 초대형 산불 /

영월군 신속 방화선 구축 민가 확산 막아

공무원 긴급 소집 명령 가용 인력·장비 총동원 피해규모 역대최대 전망

영월에서 지난 4일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지역 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일으킨 재난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산불 발생 다음 날인 5일 오후 4시 김삿갓면 외룡리 통합 지휘소에서 최명서 영월군수는 일몰 전 진화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 영월군 공무원 긴



◇영월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산불 야간 대응반이 6일 새벽 산술면 이목리 등 산불 확산 위험 지역을 순찰하며 주민 피해 등을 대비하고 있다.

급 소집 명령을 지시했다.

일몰 후 주불 진화 중지에 따라 민가로의 산불 확산은 막아내겠다는 의지다. 이에 소집

된 70명의 공무원은 10명씩 7개조로 나뉘어 오후 6시부터 6

일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산술면 이목리 고장골과 선령

약수터, 화원리, 김삿갓면 외룡리 등 위험지역 7곳을 중심으로 순찰하며 방화선을 구축했다. 또 소방 인력 33명과 소방 펌프차 6대, 의용소방대, 각 마을 이·반장 등도 동원돼 안전망 구축에 힘썼다. 특히 산불 확산에 대비해 산술면 녹전리 107가구와 이목리 15가구, 화원2리 41가구 등 255명의 주민은 푸른뜰주민센터 등에 일시 대피하기도 했다.

영월에서는 2016년 3건과 2017년 5건, 2018년 1건,

2019년 4건, 2020년 2건, 지난해 2건 등 17건의 화재가 발생해 총 19.55ha의 피해를 입었다. 지역별로는 영월읍 5건(0.9ha), 상동읍 1건(0.05), 산술면 2건(0.4), 김삿갓면 3건(5.02), 북면 1건(0.02), 남면 2건(0.9), 주천면 1건(11.91), 무릉도원면 2건(0.35) 등이다.

영월군 관계자는 “정확한 데이터 확인 중이지만 1990년대 이후 이번과 같은 초대형 산불은 처음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월=윤순석기자

산속에서 진화 사투 벌이느라 "주권 행사 기회 놓쳐"



동해안 산불 비상 소집 장병 등 "사전투표도 못 하고 주소지도 멀어"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이재현 기자 = 강원도 동해안 산불 진화를 위해 지난 4일부터 비상 소집된 군 장병이나 소방대원 등 진화 대원 중 일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정작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안타까움을 더한다.

지난 4~5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 기간에는 산불 진화 탓에 투표 시기를 놓친 데다 이날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불 피해지가 근무지인 A씨는 "5일 새벽부터 산불 진화에 투입돼 동료들과 밤새 매캐한 연기를 마시며 사투를 벌였다"며 "5일 사전 투표할 계획이었지만 산불 진화로 시기를 놓쳤고, 주소지도 경남이어서 본투표도 못 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나와 같은 처지의 부대원들이 대략 100여 명은 되는 것 같다"며 "산불 진화 지원은 지난 7일 해제됐지만, 근무지 특성상 본투표를 하기 위해 경남에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멘소리를 이어갔다.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옛새째 산불 진화에 투입된 소방대원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주소지가 도내인 진화대원은 근무 교대 후 늦게라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사곡리 산불 현장을 밤새워 지킨 한 소방대원은 "지난 4일 근무하다 출동을 해서 사전투표를 못 했다"며 "오늘 오전 9시 근무교대 후 복귀하면서 투표했다"고 말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반드시 자신의 주소지에서만 할 수 있다"며 "사전투표 제도는 과거 부재자 투표를 대체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놓친 유권자는 본투표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헬기 지원도 없어..사람도 산양도 위험

◀ 앵커 ▶

울진·삼척 산불 피해 지역 가운데는 인력이 접근할 수 없지만 헬기 지원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민가는 물론 천연기념물인 산양 서식지도 크게 위협 받고 있습니다.

이승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붉은 화염이 산허리를 따라 무세운 기세로 번집니다.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으려고 가파른 산을 힘겹게 기어 올라갑니다. 소방 호스 하나로 화마와 싸워보지만, 역부족입니다.

◀ st-up ▶

"산불 현장입니다. 진화 헬기의 지원이 없는데다가 산세가 험해 사람이 직접 오르기도 힘들어 속수무책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척 지역은 암벽이 많고 산이 가팔라 인력으로 불을 끄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진화 헬기는 울진에 비해 크게 부족한 형편입니다.

◀ INT ▶ 이금자 / 의용소방대 홍보예방 반장

"송전탑 있는 데까지는 진압이 되고요. 앞에는 약산으로 돼있어서, 진압을 할 수 없어서 헬기가 와야지 진압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현장은 임도가 없어 소방차량은 물론 사람조차 접근할 수 없다보니, 진화헬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 INT ▶ 민경진 / 강원 원주시 단계동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어제는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어제는 불길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설상가상 불길이 번지고 있는 사곡리 일대는 천연기념물 217호 산양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이 일대에만 3,4백 마리가 살고 있는데, 불길이 계속해서 번질 경우 산양의 서식환경이 파괴되면서 먹이활동에도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 INT ▶ 정강선 / 동북아생태환경연합 회장

"어린 새싹들을 좋아하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끼류나. 이런 걸 많이 먹는데, 산불로 인해서 먹이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화마가 활쫓고 간 지역에서는 동물도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

◀ END ▶

강화길

강릉 옥계 산불 방화 용의자 "주민들이 무시했다" 범행 시인(종합)

범행도구 압수...대피 중 숨진 80대와 모자 사이로 알려져



강릉 옥계면 산불..주택 피해
(강릉=연합뉴스) 5일 새벽 강원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일대 산불로 인해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2022.3.5 [강원소방본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hak@yna.co.kr

(강릉=연합뉴스) 이재현 박영서 기자 = 5일 새벽 발생한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불을 낸 혐의로 체포된 60대가 무시당했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방화 혐의로 체포된 옥계면 남양리 주민 A(60)씨는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방화를 시인했다.

그는 이 외에도 여러 이유를 들며 자신이 범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전 1시 7분께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체포 당시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이날 산불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B(86.여)씨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보행 보조기를 끌고 주민들을 따라 경로당으로 피신하던 중 밭에서 넘어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6시께 숨졌다.

B씨는 요양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고 거동도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주택 등 2곳에서 토치 등으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모자 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jlee@yna.co.kr

박영서(conanys@yna.co.kr)

강릉·동해 산불 일으킨 60대 방화범 구속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강릉 옥계에서 토치로 불을 내 강릉과 동해 일대에 산불 피해를 내게 한 60대 피의자가 범행 하루 만에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현주건조물 방화와 일반건조물 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살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토치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질러 산불로 옮겨붙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강릉옥계 산불 대피 중 넘어진 80대 숨져... "화재 연관성 적어"



바람 타고 확산하는 강릉 옥계 산불

(강릉=연합뉴스) 5일 오전 1시 8분께 강원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바람을 타고 확산하고 있다. 2022.3.5 [독자 제공. 재판에 및 DB 금지] photo@ynacokr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밤 강원 강릉 옥계에서 난 산불로 인해 대피하던 중 다친 80대 주민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8분께 옥계면 남양리 주택에서 난 불이 인근 산으로 옮겨붙으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주민 A(86·여)씨는 보행 보조기를 끌고 주민들을 따라 경로당으로 피신하던 중 밭에서 넘어졌고, 이를 발견한 이웃 주민들이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외상은 없었으나 의식이 없고 호흡이 약한 상태였다.

구급대는 곧장 A씨를 곧장 이송했고,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에 있었으나 치료 중 상태가 악화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요양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고 거동도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 당국은 산불과 사망 사이 연관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 강원 또 초대형 산불 /

영월 재발화 가능성 긴장 경계단계 최고조

주야간 순찰조 편성 경계근무 강화 나서
주민·소방 인력 비상 시 긴급 출동 대비

속보=영월군과 소방·경찰 등 지역 치안협의체가 산불에 의한 재발화 경계 단계를 높이는(본보 9일자 15면 보도) 등 영월 대형 산불의 재확산에 대비한다.

9일 소방·산림 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7분께 산불이 발생한 김삿갓면 운교산 일대 일부 구간에서 산불이 재발화됐다. 이에 인근에 순찰

중이던 뒷불 감시원과 대기하고 있던 영월군, 영월소방서 등 진화 인력들도 출동해 현장을 확인했다. 다행히 재확산 위험은 적었지만 닷새 동안 화마의 공포에 떨었던 인근 주민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에 군에서는 뒷불 감시원은 물론 각 부서별로 15%의 인원을 순찰조로 편성해 주야



◇최명서 영월군수는 9일 김삿갓면 운교산 일대 산불 재발화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서별로 15%의 인원을 동원, 순찰 강화를 지시했다.

간 경계 근무를 강화, 산불에 의한 재발화 가능성을 막을 방침이다. 영월소방서와 경찰서

에서도 대원 출동 대기는 물론 산불 확산에 따른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차 5대와 인력

12명을 현장에 투입,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영월군자율방범연합회 등 지역 내 자생 단체에서도 긴급 출동에 대비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비 소식이 없어 헬기 동원 산불 진화는 물론 산불 재발화에 대한 위험성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 대비할 계획”이라며 “산불 재발생 대비를 비롯, 산불 피해 조기 복구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월=오윤석기자 papersuk1@

강릉·울진 산불 행정지원 소방공무원 숨져

유족 “과로사”...경찰, 사망원인 조사

강원 강릉시와 경북 울진군의 산불 행정지원 업무를 하던 소방공무원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들은 과로사를 주장해 경찰이 사인 조사에 나섰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충남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소방경 7(48)씨가 지난 6일 아침 8시께

서산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7씨는 하루 전인 5일 출근해 충남지역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산불 현장으로 배치하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광진 충남소방본부 구조팀장은 “산불 지원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5일 7씨가 출근했다. 7씨는 이날 평소 업무와 달리 산

불 진화에 나선 충남지역 소방인력 운용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원 업무는 사실상 상황실 업무”라며 “차량 1대당 소방관 3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조를 짜서 교대시키고 사회관계망서비스로 현장별로 진화 상황을 실시간 파악해야 하는 등 숨 돌릴 틈이 한순간도 없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7씨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과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강원 초대형 산불

여의도 면적(290ha)의 16.5배에 달하는 강원 산림을 잣더미로 만든 대형 산불의 악몽이 닷새째 지속되면서 진화대원들의 피로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8일 산림당국과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경북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80%로 집계됐다. 현재 진화인력 671명과 장비 47대 등을 투입해 막바지 주불 진화에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난 4일부터 강원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밤낮 없이 약전고투를 벌이고 있는 진화인력들의 누적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 산불의 경우 소방청 최초로 화재위험경보 '심각'단계 발령, 전국 각지에서 동원된 진화대원들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화마에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번 산불로 투입된 진화 인력은 6000여명에 달한다.

여기에 최근 경북 울진과 삼척 산불로 비상 근무에 나선 40대 소방공무원이 자택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유족들은 숨진 고인이 최근 극도의 업무 과로를 호소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과로사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진화대원에 결원이 생기면서 남은 이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강원소방 확진자 수는 106명으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이번 산불 면적이 워낙 넓고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방어선 구축, 민가 화재 확산 저지까지 광범위한 범위에 투입되면서 직원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며 "일부 관서의 경우 확진자까지 발생, 업무 대응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구본호

"또 불났나요"...자욱한 연기에 강릉시민 문의 속출



"연기가 가득한 게 산불이 다시 난 것 같아요."

강릉·동해 산불의 주불 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7일, 강릉 도심에 산불 문의 신고가 다시 급증했다.

이날 강릉시 등에 따르면 이른 아침부터 산불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주로 "입암동 월대산 근처에 불이 난 것 같다"며 확인을 부탁하는 전화다.

SNS나 언론사 등에도 문의가 빗발쳤다.

실제 이날 오전 강릉 도심은 자욱한 연기와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김종남씨(66·여)는 "어제까지만 해도 강릉시내는 연기도 없고 멀쩡했는데 오늘 연기가 자욱하다"며 "산불이 도심으로 번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동은 입암동 등 강릉도심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옥계면과 동해 산불현장의 연기가 남풍을 타고 올라와 도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행정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문의가 쏟아지자 실제 강릉시 등은 관련부서와 소방당국에 확인을 해보기도 했지만 산불이나 화재가 난 곳은 없었다.

강릉시 관계자는 "옥계, 동해지역 산불현장 영향으로 오인신고와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대응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상황을 대비해 작은 문의 하나도 꼼꼼히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소방청, 강원·경북 산불 주불 진화로 전국 소방동원령 해제(종합)



소방청은 13일 오전 9시부터 경북 울진지역과 강원 삼척지역 대형산불에 내려진 소방동원령을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이달 4일 오전 11시17분쯤 경북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상태에서 강풍으로 인해 급속히 확산돼 피해가 커짐에 따라 오후 1시50분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에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했다. 이후 강풍으로 산불확산이 지속되자 소방청은 다음날 오전 5시30분쯤 전국 소방동원령을 2호로 격상해 산불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소방청장은 우선 민가와 요양원, 국가주요시설 등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하고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경북과 강원 지역의 자체 소방력과 전국에서 모인 소방력이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 영월 지역에 분산 배치돼 산불방어선을 구축하고 화재진압에 나섰다.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동원된 소방공무원 수가 연인원 1만130명이며 소방차량은 3450대에 달한다.

경북 울진에 위치한 한울 원자력발전소에는 고성능화차(로젠바우어) 5대를 비롯한 소방차량 24대를 배치해 비화로 인한 산불확산 방어에 성공했다. 강원 삼척의 LNG기지에는 올해 초 소방청에서 최초로 도입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아울러 이번 산불로 임시 대피장소로 대피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119구급대원을 파견해 혈압과 혈당 체크 등 건강상태 돌봄 서비스도 진행했다.

의용소방대 활동도 이번 산불진화에 큰 도움이 됐다.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총 5273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동원됐다. 경북지역의 2813명과 강원지역 2460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 영월 지역에서 산불 진화작업과 현장대원들의 급식지원을 도왔다. 화재로 인한 피해현장에 잔해정리와 물 청소, 피해주민 위로 등 복구 지원에도 나섰다.

이흥교 소방청장도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 동해시 등 산불현장을 수시로 오가며 현장을 지휘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이번 산불 대응에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 뿐만아니라 군인, 경찰, 산림청·지자체 공무원 등 모두의 헌신적인 활동과 역할에 감사드린다"며 "이재민분들께 위로와 함께 빠른 복구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산불 관련 업무 과로로 충남소방본부 소속 직원 한 분이 사망했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과 동료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내일(15일)부터 강원 산불 피해지역 합동조사

강원도와 행정안전부,

강릉, 동해, 삼척, 영월 등 4개 시군은

내일(15일)부터 6일 동안

산불 피해 합동조사를 벌입니다.

합동조사팀은 산불 피해 발생 지역의

사유재산과 공공재산 피해 조사와 함께

복구 계획을 수립합니다.

강원도소방본부도 오는 20일까지

산불 피해 원인과 발화지점 등

현황 조사를 벌입니다.